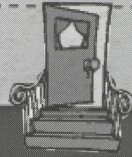


숨쉴 여유를 찾아서, 여자만의 방으로

요기를 두드리세요 ▶



'왜 저런 말을 하지?
'기분이 나쁘다. 왜 아무도 화를 안내지?'
'내가 이상한 걸까...?'

일상에서 부딪치는 작은 짜증들, 분명히 옳지 않은 말인데,
왜 모두 같이 웃고만 있을까요?
화가 나는 건 나뿐일까요?

여자들끼리만 하고 싶은 이야기, 맘놓고 화낼 수 있는 공간,
서로 힘주고 힘 받을 수 있는, 작지만 대담 행복한 공간이 있습니다.
매달의 커버스토리, 상담게시판, Q&A 게시판이
더 행복한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숨쉴 수 있는 여유를 찾아서,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만날까요?

선보 메일
happyfem@yonsei.ac.kr



박제된 선택을 거부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제1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수진 · 권박미숙** 과 함께하는 사람들



총여학생회 정후보

김남수진_샘 (인문계열 4학년)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활동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활동
제4회, 제6회 여성연대한판 기획단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 샘 | 지 침 없 이 심 없 이, 언 제 나 새 롭 게 솟 아 나 는 여 성 주 의 의 샘!

사실, 주어진 선택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가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착하고 무난하고 성격좋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예민하고 편협하고 골치아픈 아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웬만하면
눈 딱 감고, 입술 한번 깨물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냥 하하, 웃어넘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 눈을 가리고 내 목을 감던
그들, 과 그것, 이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선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는지도 모른다.



제16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수진 · 권박미숙 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성폭력

여성노동

레즈비언

사이버가

사이버공간

성=H=H

장미가

사이버공간



일상, 일상,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구르다가 찢어지고 갈라져 결국엔 지쳐 늘어져 있던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토닥이는 따뜻한 힘.

내 눈을 덮어씌우던 탁한 나른함, 내 목을 졸라대던
마른 씹쓸함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험을 언어화해내는 설레임과
여성으로서의 나를 재정의해내는 즐거움.

여성주의와의 만남은 새로운 활기와 용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성주의는 행복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부후보

권박미숙_열 (사회계열 3학년)

정치경제학 연구회 목하회 활동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활동
15대 총여학생회 집행부
제회 석수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기획단
제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단

| 열 | Fever, 너와 나를 휘감는 여성주의의 열기!!